



“평생 걸어야 할 배우의 길 늦더라도 올바른 길 같 것”

‘대장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등 연기 경력 22년차 이세영

배우 이세영(사진)은 올해로 스물다섯이 지난 연기 경력은 22년 차다. 10여 년 전 MBC TV ‘대장금’이나 영화 ‘여선생 VS 여제자’에서의 모습과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KBS 2TV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의 모습은 사뭇 다르면서도 어색하진 않다. 학생이었던 그 시기, “남들처럼 매장에 빵을 사러 1분 만에 뛰어갔다 와보고, 대학생엔 정제(?)를 숨기고 과일이나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는 등 그 시기에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기 때문”이라고 그는 말한다.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철없는 듯 속 깊은 민호원 역을 맡아 강태양 역의 현우와 커플로 큰 사랑을 받은 배우 이세영은 최근 강남구 논현동의 한 카페에서 열린 드라마 종영 기념 인터뷰에서 “그런 소소한 경험들이 참 좋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크게 사춘기나 성장통이 없었다”며 “학생 때는 학업에 전념하고 성인이 돼서 다시 연기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부모님의 의견과 제 의견이 일치해서 학창시절에 누릴 것을 다 누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액의 계약금을 준다는 소속사에 들어오란 권유도 많았지만 대학에 가기 전까지 그러지 않았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대학 면접 때는 ‘넌 회사가 없네. 어릴 땐 예뻐는데’ 하는 얘기도 들었지만 큰 상처를 받지 않고 그저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만 했다”고 덧붙였다. 물론 아쉬움이 없었던 건 아니다. 이세영은 “이 나이에만 보여드릴 수 있는 모습도 있을 텐데 보여드리지 못한 아쉬움은 조금 있다”면서도 “그래도 연기가 평생 걸어야 할 이기 때문에 빨리 걷기보다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싶다. 욕심은 또 많아서 나태해질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근 큰 사랑을 받으면서 ‘어렸을 때 너무 예뻐서 남치될까봐 걱정된 부모님이 아역 배우로 데뷔시켰다’는 소문이 다시 화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세영은 “제가 태어났을 당시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이 있었는데 제가 마르고 눈이 크니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뽀뽀뽀’ 같은 데 내보내면 혹시 사고가 생겨도 목격자 진술 확보에 유리하지 않을까 하며 연에게 데뷔를 권유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물론 부모님의 권유로 데뷔했지만 제 성장과도 맞았기에 빠른 시기에 진로를 결정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의 또 다른 꿈은 어려운 아이들을 위한 학교 또는 자원재단을 설립하는 거다. 이세영은 “꿈과 비전이 있지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아이들에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다”며 “특히 개천에서 용 나기 대단히 힘든 세상이었지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고 말했다. 나중에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도 해보고 싶단다. 인터뷰 내내 ‘어린왕자’의 캐릭터가 그려진 수첩을 들고 씬 씬 메모하는 모습을 보였던 그는 강단도 잘 어울릴 것 같다. 아역배우 출신으로서 최근에 연예인을 꿈꾸는 아이들을 보며 드는 생각도 많다고 한다. 이세영은 “우리나라에선 연예인에 대한 관심도가 특이하리만큼 높다. 화려하게 보이기 때문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직업군이다”며 “그러나 어린 나이에 단순히 진로를 결정하는 건 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요즘은 어리지만 외모도 ‘완성형’이고 춤도 노래도 잘하는 다재다능한 친구들이 많긴 하다”면서도 “졸아서 하려는 게 아니라 연예인을 보고싶다는 이유로 연예인을 하려는 친구들이 있는데 신중하게 선택하길 권하는 편”이라고 덧붙였다.

여진구·김강우, SF장르 만나다

현재와 미래 공존이야기 ... tvN ‘씨클’ 5월 방영

배우 여진구와 김강우가 tvN이 새롭게 선보이는 SF 추적극 ‘씨클’의 주연을 맡았다. 10부작 ‘씨클’은 2017년 현재와 2037년 미래의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하며, 한 회에 현재와 미래 두 개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새로운 형식의 드라마다. 타임슬립이 아닌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설정이다. 연출은 같은 방송사 ‘푸른거탑’, ‘SNL코리아’의 민진기 PD가 맡았다. SBS TV ‘뿌리 깊은 나무’, ‘육룡이 나르샤’를 쓴 김영현·박상연 작가가 기획으로 참여하고 김진희·유해미·류문상·박은미 작가가 공동으로 집필한다. 여진구는 2017년 현재를 배경으로 한 ‘파트트’의 남주인공으로 출연한다. 외계에서 온 인물의 등장과 함께 벌어지는 의문의 사건을 파헤치는 대학생 김우진 역이다. 김강우는 2037년을 배경으로 하는 ‘파트



여진구 김강우

2’에서 감정이 통제된 미래도시 ‘스마트 지구’에서 벌어진 의문의 사건을 따라가는 형사 김준혁으로 분한다. 민 PD는 3월 ‘여진구, 김강우 두 배우 모두 드라마의 참신한 소재와 새로운 형식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씨클’은 오는 5월 중 첫 방송 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슈퍼스타K’ 8년만에 휴식기

화제성 약화·시청률 저조 ... “향후 방향 논의 중”

엠넷의 간판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사진)이 8년 만에 처음으로 휴식을 선택했다. 엠넷 관계자는 7일 “올해 엠넷 라인업에 ‘슈퍼스타K’는 없다”며 “단 폐지는 아니며 향후 프로그램의 방향을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슈퍼스타K’는 2009년 출발해 지난해까지 8개 시즌이 방송됐다. ‘슈퍼스타K’의 돌풍으로 MBC TV ‘위대한 탄생’, SBS TV ‘K팝스타’ 등 지상파에까지 오디션 프로그램이 편성됐고 신드롬으로 이어졌다. ‘슈퍼스타K’는 그동안 서인국, 허각, 율라라세션, 버스커버스커, 로이킴, 정준영, 박진영, 김필 등 다양한 가수를 발굴해



다. 다만 지난 시즌부터는 초반만큼 화제성을 몰고 오는데 실패한 측면이 없지 않고, 시청률도 저조해지면서 재정비 차원에서 휴식을 갖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재나 불발)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아이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스쿨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한국인의 밤상 (재) 50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수목드라마 <김과장> (재)	00 월화드라마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 (재)	00 열린TV 시사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미생나인 (재)	00 SBS 12 뉴스 30 KBC 12 뉴스 50 TV블로그 토크 55 데마스페셜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네티즌크기획 문화산책 55 시사기획 창 (재)	00 비타민 (재)		55 닥터 365
2	50 팔도방송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20 텔미스토리 (재) 30 드림 주니어 스페셜	00 2시, 뉴스브리핑
3	00 2017년 장교 합동 임관식 45 코리아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자동차부채상 위키 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헬로키키 아하! 동물탐대 (재) 55 프리파라 2	00 SBS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30 여유만만 (재)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꼬마이사 공도령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건강향 토크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공감다큐, 사람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토크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0 집중 인터뷰 이사람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살림하는 남자들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 '10'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김과장>	00 수목드라마 <미생나인>	00 드라마 스페셜 (사인당, 빛의 일기)
11	00 KBS 뉴스라인 40 힐링다큐 3부작 나무야 나무야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	35 동행 (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5 MBC 뉴스 24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중국 비경 서해객류명기 황산>	09:40 글로벌 아침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골뱅이 수삼무침)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플라워링 하트(I)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월드 08:00 덩동영 유치원 1~2 08:30 똑딱맨(재)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엠마 까투리(재) 09:30 물랑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초대석(재) 13:40 국한직업(재)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기탐대 15:20 마사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하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소(재)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딱지(재) 16:45 덩동영 유치원 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 17:30 로보가 놀리 17:45 똑딱맨(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1~4 19:00 어벤저스: 울트론 레볼루션 19:30 EBS 뉴스 19: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20:50 세계테마기행
	<매혹의 보물섬 인도네시아 - 위험한 생존의 섬 지바> 21:30 한국기행 <내 맘대로 산다 - 운악산 상남자들> 21:50 EBS 다큐 프라임 <사라진 인류 Lost Humans - 생존> 22:45 극한직업 <라오스 커피 농장>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채널e 24:30 EBS 초대석 <행복한공부연구소장 박재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8일(음 2월 11일 甲午)
子	48년생 조짐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면책하기 힘들 것이다. 60년생 부수적인 것에 얽매어서 주된 것을 소홀히 할 수 있다. 72년생 날날이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84년생 원하는 바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는 현대이다. 행운의 숫자 : 24, 41	42년생 다양한 방안들을 활용해 보라. 54년생 고고한데만 참된 결론에 이른다. 66년생 희망의 무지개가 문전에 드리워졌다. 78년생 쉽게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으니라. 90년생 현상이 보이는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라. 행운의 숫자 : 45, 87
丑	49년생 예견해 왔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리라. 61년생 전체를 아우르고자 하는 노력이 절실할 필요하다. 73년생 예상과는 달리 너무 쉽게 끝나버릴 것이다. 85년생 만나거나 접하는 모든 것의 인연이 짧았다. 행운의 숫자 : 61, 19	43년생 길성이 왕성해지고 있으니 필히 이루어라. 55년생 좋은 약은 입에 쓰고 총직한 말은 귀에 거슬리는 법이다. 67년생 변동으로 인해 걱정거리가 생긴다. 79년생 하나하나 정리해야 할 국세에 놓여 있다. 41년생 허점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46, 15
寅	50년생 마음에 담아 두지 말고 내버려 두되 되는 판세이다. 62년생 오매불망으로 학수고대하던 반가운 소식이 있겠다. 74년생 잘 살펴보지 않는다면 결정적인 패인을 낳는다. 86년생 과정이 부실하면 헛수고이다. 행운의 숫자 : 68, 53	44년생 이채로운 세계를 접하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 56년생 부합하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느니라. 68년생 부담 없이 처리해도 무방하다. 80년생 활로를 개척하는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니 기탄없이 수용하라. 행운의 숫자 : 25, 42
卯	51년생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면 노력에 정비례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63년생 장기적인 안목으로 대처하라. 75년생 합리적으로 도모한다면 불행함이 사라지리라. 87년생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15, 88	45년생 소비적인 요소를 청산해야 자기 발전을 꾀하게 된다. 57년생 서로 관련된 수밖에 없다. 69년생 거의 비슷한 정황이 단순 반복되면서 지루하리라. 81년생 원리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무난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13, 82
辰	52년생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바에 대하여 확실히 민회할 수 있는 기회를 잡하게 될 것이다. 64년생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계기가 조성된다. 76년생 이루어지고 있다. 88년생 마음은 있으나 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행운의 숫자 : 26, 56	46년생 대안이 없다면 현상 그대로 두는 것이 상책임을 알아야 한다. 58년생 의외의 요인에 의한 자멸이 보인다. 70년생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따라 주는 것이 순조롭다. 82년생 정황 파악에 빈틈이 없어야만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58, 88
巳	53년생 진위를 구분하기가 참으로 힘들었다. 65년생 전혀 이해할 수 없어서 대단히 혼란스럽었다. 77년생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면모를 띠고 있다. 89년생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가는 이가 있겠다. 행운의 숫자 : 14, 95	47년생 불변하는 가치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59년생 체면보다는 실리를 추구하는 것이 낫다. 71년생 이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83년생 사실은 별것 아니니 완전히 무시해도 된다. 행운의 숫자 : 71, 97